

좌담 : 전환점에 선 협회,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KIRA at the Turning Point : Its Future Choices

건축문화창달의 구심체로서 건축계 발전과 공익에 이바지하고 건축사 회원의 권익옹호 및 업무개선에 앞장서 온 대한건축사협회는 36년의 오랜 역사가 말해주듯 7천7백여 회원과 산하 16개 시도건축사회와 84개 지역건축사회로 구성된 조직력을 갖춘 전문자격사단체로 당당히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국내 여타 전문자격사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지난 경제성장기 동안 제도의 틀 안에서 안정을 누리온 협회에 대해 그 기능과 역할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건축계 안팎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회원들의 요구 또한 적극적이며 다양해지고 있다. 여기에서 장기간 계속된 건축경기 침체는 건축사사무소들의 경영상태를 크게 악화시켜 회비 수입에만 의존해온 협회의 재정상태를 어렵게 하므로써 향후 협회재정 자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에 의해 설계도서신고제가 폐지되는 등 회원들의 의무규정이 상당부분 완화되었으며 또한 임의단체로서의 전환과 함께 회원가입이 자유화됨에 따라 협회로서는 회원 결속력 강화와 자생력 확보라는 두 과제를 시급히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WTO에 의한 건축서비스시장 개방이 가속화되고, 이러한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해 정부가 각종 규제 완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앞날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건축사의 이익과 주장을 대변하는 창구로서의 기능 또한 중요시되고 있다. 따라서 전환기에 선 협회의 발전적 앞날을 위해서는 보다 다각적인 방향에서 그 위상을 재정립하고 또한 국제화·개방화·정보화시대에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전문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번 좌담을 통해 협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명해 보고 아울러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자격사단체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편집자주>

일 시 / 2001. 1. 10(수) 14시
장 소 / 본협회 회의실
참석자 / 김승훈/건축사사무소 경영위치
김영섭/건축사사무소 건축문화(불참)
목대상/상화건축사사무소
박서홍/희산건축사사무소
이관영/한인건축, 본협회 이사
이상돈/세림건축, 전북건축사회 회장
최찬환/서울시립대 교수
장양순/동명건축, 본지편찬위원장, 사회



좌담장경

회원들 협회를 잡부금 내는 단체로 인식 피해의식 많아 임의화되면 탈퇴하려는 회원 다수 우려

장양순 _____ 새해를 맞이해서 계획하신 모든 일이 성취되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시하시는

비와 같이 WTO에 의한 건축사자격제도의 개선과 이에 따르는 문제의 해결, 그리고 건축서비스 시장개방에 따른 대책 등 산적인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우리 협회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많은 회비



미납자를 양산하고 있어서 생존문제를 걱정하는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더구나 1년여의 유예 끝에 금년부터 임의단체가 되어 회원가입의 자유화, 도서등록의 폐지 등 36년간 안주해 왔던 어제의 판이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자생력확보와 회원의 결속력강화라는 두 명제를 해결해야 하며, 다각적인 방향에서 그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오늘 죄담회도 이와같은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또 우리 협회가 제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조직으로 거듭나는데 일조가 될까해서 마련했습니다. 그간 협회에서는 특대위를 가동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영이사께서 그간의 과정 등에 대해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이관영 _____ 아마 오늘 죄담회에서 가장 관심이 되는 부분이 협회의 가입이 임의화가 된 뒤에 어떤 변화를 맞을 것인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예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협회에서는 여러 방향에서 협회가입 임의화에 대한 대책들을 논의해 온 바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협회가입을 임의화 한 것은 중고등학교의 복장이나 머리모양을 자율화했던 것에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무적이고 강제적인 규제에서 임의적이고 자율적인 역할을 기대하고자 하는 의도이겠지요.

따라서 과거에 두발이나 교복에 대한 규제를 자율화 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측면을 염려했습니다만,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율화가 정착되었던 것처럼, 협회 가입이 임의화가 된다고 해서 협회가 크게 위기를 맞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협회라는 조직의 힘으로서만 가능한 역할, 앞으로 협회의 이름으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산적해 있느냐를 회원들에게 정확하게 알릴 수만 있다면, 오히려 회원들로 하여금 협회의 필요성을 보다 확신할 수 있도록 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양순 _____ 임의화에 따른 큰 위기는 없을 것이라는 말씀인데, 이런 문제를 가장 절실히 현장에서 느끼고 계신 목대상소장께서 회원들의 목소리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지요.

목대상 _____ 서초건축사회 회장으로서 회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임의단체가 되면 회비문제라든가, 협의문제 등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되는냐는 문의를 많이 해왔습니다. 사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워왔던 것이 아니라 본협회나 서울협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따라하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탈퇴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탈퇴 의사를 묻는 회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분들에게 탈퇴하려고 하는 이유를 물으면 협회에 가입했을 때 도움이 되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회가 좀 더 회원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변화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돈 _____ 임의화로 변하는 세태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우리의 단체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과제 연구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지난해까지 협회에 대해 회원들은 잡부금을 내는 단체로 인식하고 있고, 또 피해의식을

협회 가입 임의화 전화위복 기회로 타율적 관행에서 자율화로 새로운 개념의 틀 짜야

가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회비문제입니다. 본부, 시도건축사회, 지역건축사회, 상조회, 신협 등에 내는 월정회비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의화가 되면 탈퇴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회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모임을 가질 때에도 소속감이 있고, 회비를 내더라도 아깝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건축사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현업에 종사하면서 대한건축사협회에 소속감이 없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결국 협회에서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협회 가입 임의화 등 주변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거듭나는 협회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기해 놓고 각론적인 분야에서 참여하지 않고는 안 될 것이라는 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즉, 법적인 문제, 자율적인 문제 등에서 좋은 방안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신입회원 입회시 가입비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는 400만원의 입회비를 내도록 되어 있었으나, 과연 400만원을 내고 회원으로 들어올려고 하겠느냐는 문제입니다. 현재 업무신고는 해놓고 가입비가 없어서 협회에 가입을 못하는 건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주장하는 의견이 되겠습니다만, 가협이나 학회보다 저렴하게 한다든지, 일부를 내면 종신회비로 한다든지 등의 방법연구가 있어서 회원들에게 좀 더 편안함을 제공해 주었으면 합니다. 또 임의화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만, 건축사가 설계를 하지 않았는데 건축사 인장이 날인돼서 허가가 나고 준공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사의 인장을 도용한 것입니다. 이런 사례 등은 무방비상태로 방치되어 관에서 체크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전산처리가 잘 되고 있으니 건축사 확인증이라든지, 실적증명이라든지, 소속증명 등을 활용해서 비

건축사가 설계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협회에서 수익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비근한 예로 재향군인회에서는 중앙고속이나 충주호 유람선 등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몽골에 갈 기회가 있어 현지에 가보니까 골프장을 건설해서 건축사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해서 자문을 해 준 일도 있습니다. 우리도 수익사업을 해서 회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양순 현재 우리협회가 임의화가 됐다고 해서 복수단체가 금방 탄생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안심이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단지 문제는 회원의 탈퇴수가 급증하리라는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참고로 2000년도 11월말 기준으로 월정회비 수납현황을 보면, 부산의 경우 31.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이 50.4%이고, 80%이상인 곳이 제주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등입니다. 평균이 57.1%로 나타났습니다. 실질적으로 회비를 못내므로해서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것이 불황과 겹쳐서 탈퇴 쪽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복수화 뿐만이 아니라 회원을 관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리라 봅니다. 최고수임계서는 외부의 입장에서 임의화에 따른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최찬환 임의단체화 되는 것은 규제완화, 자율화, 경쟁에 의한 시장원리, 서비스 제고 등 정부의 정책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건축사협회는 물론 대부분의 단체가 해당되는 것으로서 싫든 좋든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임의단체화 함에 따라 당장 급격한 변화는 없겠지만 변화의 단초는 제공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건축사협회가 건축사법에 의해 등록건축사가 강제로 가입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타율적이었다면 이제부터

본부는 회비이상의 일 한다고 자부 건축사와 관련된 정책 등 근본적 문제 다뤄

는 자율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사협회에 열성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시는 회원이 있는가 하면 다소 비판적이고 방관적이랄까, 소극적인 태도를 가진 회원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와같이 견해를 달리하는 여러 회원이 한 데 아울러 실질적으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므로 건축사협회가 지금까지의 조직과 업무, 회원관리와 서비스 등 모든 면에서 새로운 개념과 틀은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다양한 의사를 합리적으로 결집시켜야 하며, 상의하달(上意下達, Top-down) 방법이 아닌 하의상달(下意上達, Bottom-up)에 의해 의견통합과 수렴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원에 대한 자격을 사무소 등록회원에 한할 것인지, 아니면 건축사 자격자로 할 것인지, 또한 어느정도 외부에 개방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보며 다양한 입장과 처지에 있는 현재의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장으로서 사협회는 건축인의 사랑방 역할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장양순 _____ 협회가 임의단체가 되면서 기능이나 역할을 재정립을 해야한다는 것에는 모두 동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러한 것을 재정립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동안에 회원으로서 협회를 보는 시각은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희 _____ 저는 이 자리에 한 평범한 회원의 입장으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 건축사들에게 있어서 건축사협회는 그 존재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그간 많은 불편을 겪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설계도서신고를 건축사협회에 허가 신청 후 열흘 이내에 하지



않아서 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예가 있습니다. 그러한 험악한 규정을 만들게 한 것도 건축사협회이고, 열흘 내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행정관서에 통고한 주체도 건축사협회입니다. 이 제도가 올해부터 없어졌지만, 그동안 건축사협회가 회원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보다 심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물의 감리를 설계한 사람이 아닌 지역 건축사가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는 제도를 건축사협회가 입안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려던 적이 있었습니다. 감리의 중요한 부분을 다른 건축가에게 의무적으로 맡겨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제도를 다른 기관도 아닌 건축사협회가 추진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건축가들이 당시에 이러한 풍토에서 어떻게 건축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깊은 절망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직원들로부터 건축사협회의 불친절에 대한 불평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제 자신도 예전에 겪은 일이기도 합니다. 미래의 건축사가 될 사람들조차 건축사협회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계기를 건축사협회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예들은 건축사협회가 임의단체가 되었다는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근본적인 성찰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찬환 _____ 도움을 주는 것이 본연의 목적인데, 걸림돌이 됐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관영 _____ 임의화로 인하여 예상되는 변화, 예를 들면 회원수의 증·감 문제는 회원으로서의 부담과 회원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수혜랄까 이익, 이 두가지 면을 생각해야 하는데, 이 문제는 협회 본부에 대한 경우와 지역건축사협회에 대한 경우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시도회와 본부를 상대로한 문제 구별해야 본부 이성적이고 공동의 활동, 지회 친목 향토성 등 감성적 활동해야

김승희_____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회원이 협회로부터 어떤 수혜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축사협회가 회원을 '관리' 하고 있는 태도, 건축사협회가 좋은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건축가를 도와주는 단체임을 의심하게 하는 여러 제도들을 만들어내는 의사결정의 구조, 협회를 이용하는 여러 사람들에 대해 올바른 배려를 하지 않는 메커니즘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관영_____그것이 바로 전세계 건축사단체들이 겪고있는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수준과 성격이 서로 다른 건축사간의 다양한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정적인 면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김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협회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젊은 건축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Lonely Wolf' 라고 부르며, 협회에의 가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집단생활을 하는 늑대의 습성에 비유해서 '외토리'라는 뜻이겠지요. 그러나 역시 늑대는 집단으로 생활할 때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이야기를 다시 (부담)과 (수익)으로 돌려본다면, 본부와 지역건축사회를 대상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령 본부를 상대로 했을 때의 부담은 월정회비 2만원으로 연 24만원입니다. 그러나 지역건축사회의 회비는 이보다 몇배나 더 많습니다.

임의화가 된 다음에 본부회비와 시도건축사회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게다가 서울의 경우 구건축사회까지 있지 않습니까. 임의화가 된 다음에 회원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한건축사협회의 회비만 내면 되지 않느냐는 미묘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대책위에서 여러번 거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더 파생되는 문제는 지역건축사회의 존립문제가 나올 것이고, 그 운영방법에서 예를들면 지역건축사회 운영은 무슨 재원으로 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수혜라는 표현은 모호하지만

일종의 회원에게 되돌아가는 서비스면에서도 본부가 회원에게 주는 이익과 시도건축사회비를 부담하는 대신 되돌려받는 이익이 구분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가령 본부에서 받는 수혜라고 한다면 할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건축사제도개선문제라든가, 최근에 일고 있는 건축사교육개선 문제라든가, 법규개정문제 등과 같이 건축사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본부가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회원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 중에서 김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본부에서는 2만원어치 일은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도건축사회비, 아까 전북회장님이 말씀하신 비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좀 다릅니다. 그렇게 볼 때, 가령 지역건축사회비를 안내고 대한건축사협회 본부회비만 냈을 때 그 사람이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이나, 아니냐의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특히 구건축사회의 회비의 경우는 आय회, 운동회, 바둑대회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회비를 안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물며 강제화 일때도 회원의 자격에 의문을 가진 사람이 많은데 임의화 일때는 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협회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느냐를 생각할 때, 시도건축사회를 상대로 하는 문제와 본부를 상대로 하는 문제가 돼서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지금 현재 건축사협회의 재원이 회비 2만원입니다. 그것으로 협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예산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부끄럽거나 잘못된 것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축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축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인 대안연구의 경우, 회원에게 돌아오는 것이 이익을 눈에 보이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건축사와 관련된 제반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논의하기 위한 조직은 계속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는

사법개정, 자격 상호인정, 시험제도 개선 등 협회가 아니면 못해

제3의 협회 출현 가능성 적어

지금의 협회가 가장 적합한 조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의 협회를 대체할 새로운 조직의 탄생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최찬환 _____ 사람들이 선택의 기로에 섰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고 받는 이해관계를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원이 협회에 기여하거나 주는 것 하고, 협회를 통해서 받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어떤 것이 크고 작으냐에 따라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경제적이거나, 유형의 것이든, 무형의 것이든 총체적인 이득과 주는 것을 따지는데 지금까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김승희소장께서 이야기했듯이 일부 건축사들은 협회가 무엇을 했느냐고 반문합니다. 협회라는 것이 회원이 일하는데 방해만 되고, 회원과 협회의 뜻이 상반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혹 협회가 하고 있는 일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해도 뜻이 맞지 않으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본부의 대표성은 국가로 비유해 보면 국방과 외교에 해당됩니다. 어떤 한 조직체가 대외적 창구를 할 때는 중복업무를 하지 않고 단합해서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기획업무라든지, 대외활동 소위 이해집단으로서의 정당한 권리주장 등은 본부에서 해야 합니다. 본부 협회가 중앙정부라고 생각하면 지회는 자치단체와 비슷하지 않나 봅니다. 따라서 지회는 친목이나 향토성 등 감성적인 활동을 주로하고, 본부는 전문인의 공동체로서 이성적이고 공동의 활동을 주로하는 체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를 나누어 생각할 때 본부의 성격은 임의화 단체가 되어도 분명히 존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려되는 것은 있기는 있지만 그 뜻은 같은데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또 하기는 하는데 뜻이 맞지 않는다면 별도의 임의단체가 생길 수 있다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관영 _____ 저는 이런 죄담회를 통해서 김소장님처럼 상당히 섭섭하셨던 회원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저도 섭섭했던 회원 중의 한사람입니다만, 조금만 더 협회에 관심을 갖는다면 섭섭해도 버릴 수 없는 필요한 존재임을 아실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최근 몇 년동안 협회에서 가장 중점을 둔 사항만 보더라도, 국내적으로는 각종 건축사법규개정문제와 관련하여, 건축이 올바르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고, 대외적으로는 소위 WTO와 관련된 건축사자격 상호인정, 교육제도개선, 시험제도 개선, 계속교육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방대한 문제들은, 회원들이 구성해 주신 협회가 아니면 추진해 나갈 수 없고, 결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더라도 먼 장래에는 언젠가는 건축사로서 근무했던 것이 자랑스럽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더 많습니다. 건축사의 수준과 위상이 높아지면 이제까지 염려했던 문제들이 자연히 해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대로 교육을 받고, 제대로 건축사에 대한 인식을 스스로 갖게 되면 비상식적인 결정들도 안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앞으로 협회가 가야할 길이 굉장히 멀고 험난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회원들은 협회에 대해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발전시켜 단합된 협회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돈 _____ 본협회에서는 회지편찬, 법령개폐 참여 등을 비롯하여 대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기술자관리, 시험관리 등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회원 한사람이 본협회 회비로 부담하는 금액은 일년에 24만원입니다. 24만원을 내고 협회에 가입해서 활동을 했다고 하면 그만큼 수혜는 받는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본부에 대해서는 거의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각 시도회별로 회원당 50~140만원 정도를 내야 시도건축사회의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회원

본부회비 이의 없으나 지방회비 지역따라 3배차이

시도회 기구 축소 등으로 회비 절감해야

은 50만원을 내는 반면, 제주회원은 140만원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금액에는 본부회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각 시도건축사회에서는 과연 회원들에게 무엇을 해주었느냐고 반문해 볼 때 회원들의 입장에서는 피해의식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도건축사회의 경우 잡부금은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사무기구는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서등록이 없어지는 등 기존의 업무가 축소되어 회원관리업무에만 주력해야 할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각 시도건축사회 사무국의 최소운영비용만이라도 본부예산에 포함시켜서 지원해 줄 때 조직도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외의 사업은 지역별로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자체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대한건축사협회에는 모두 회원으로 가입하고, 지역건축사회는 나름대로 특성을 살려 운영함으로써 자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는 시도건축사회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본부에 가입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깊에 논의되어 다듬어져야 할 것을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부에서는 건축사업 전반에 관련된 확실한 사업을 해주고, 지역건축사회는 지역의 필요에 의해서 회원간 친교 및 지역건축문화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을 해나간다면 회원들이 적어도 피해의식은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장양순 임의단체화와는 관계없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 협회의 기능과 역할은 반드시 재정립이 돼야 된다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협회가 회원에게 주는 것, 회원이 협회에게 주는 것이 최소한 균형을 이루든가, 회원들에게 더 많은 수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회와 본부와의 역할이 확실하게 돼서 예를들어 기획은 본부에서 관리하는 지회에서 하는 형태로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회원 전체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이 대단히 중요하고, 협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탈퇴하는 회원도 적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임의화되기 이전부터 예상을 해왔었고, 95년에 협회 개혁에 대한 백서가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시 상황과 오늘의 상황을 비교해서 박서홍소장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서홍 임의단체를 이야기 하면서 임의단체에 대한 성격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차제에 임의단체가 된 뒤의 우리협회의 성격이 과연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고, 그 성격규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사항으로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중앙집권적 시각에 대한 세부사항과 지방분권적 시각

을 가지고 있는 세부사항 등 상당히 혼란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협회의 임의화 문제는 전제조건이 선행된 뒤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 지금은 많은 변화를 거친 시기이기 때문에 95년도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봅니다. 임의화가 됐다 것은 대부분 관변단체의 성격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협회의 성격으로 보서는 관변단체를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변단체의 성격을 가진 상태에서 임의화라는 것은 친목집단, 시민단체의 성격을 지닌 NGO 그룹 그리고 전문가들이 모인 이익단체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어떤 성격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뒤따르는 문제의 방향이 결정되리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2001년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새로운 시장질서에 맞는 협회조직을 구성한다는 의견일치를 본다면서 여기에서 주안점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고객은 왕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절대적으로 회원을 전제로 하는 시각이 전제가

현행 규정 시도회 가입없이 본부 가입 불가 지회 관리비 본부 예산 편성도 고려해 봐야

되는 식으로 임의화문제를 정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의화가 됐을 때 협회를 중심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 우선 둘이상의 복수단체의 가능성에 대한 문제, 회비수납 등 협회운영에 대한 문제, 탈회와 회비미납후의 문제 그리고 본부와 지부와의 문제, 즉 4개의 축으로 나누어 논의하다보면 우리가 처한 문제가 정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찬환 _____ 각 사무실 나름대로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혼자하고, 혼자서 못하고 두서너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친한 사람끼리 모여서 하고, 단체로서 다함께 할 수 일은 반드시 창구를 단일화해서 힘을 모아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이와같은 공동의 일을 하는 것이 협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관영 _____ 그래서 제3, 제4의 단체들이 나오기가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떠한 그룹에서 새롭게 단체를 만들 경우, 거기에는 목적과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 이유와 목적이 예를 들어 기존의 협회에서 못하는 것을 가지고 하겠다거나 하고 싶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환영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다시 만들어서 하는 일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친목을 다지는 모임은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이른바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협회로서는 지금의 협회이상의 능력을 갖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도 회원들이 조금 더 협회에 대한 인식을 바꿔서 능동적으로 협회에 참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서홍 _____ 협회의 성격을 규명하고 운영 방침을 정하는 데 이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협회의 리더십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양순 _____ 이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우리

협회는 전문가단체로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서홍 _____ 이익을 표방하는 전문가단체라면 동일한 직업군을 갖는 수평적인 유대관계 조직이고, 거기에서 문제는 생긴다고 봅니다. 수평적 유대감으로 묶여진 우리의 공동체라는 인식을 같이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수평적 유대감으로 묶여진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공동체는 3가지의 공동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공동의 이해, 유사한 경험, 공동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이 세가지가 다 상이합니다. 이제는 추상적으로 원론적인 문제 토론보다는 이 세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세부적으로 정리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덧붙이자면 복수단체 문제도 그것의 출현은 필요에 의해서 탄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아서도 안되며, 막는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오히려 복수단체의 출현에 대비해서 의욕적으로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협회가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관영 _____ 협회의 기능과 역할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전에 먼저 시급한 현안문제를 열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건축사의 기능과 정의가 국제화로 바뀌는 과정에 있습니다. 국제적인 건축사자격의 평등화란 문제가 WTO에 의해서 대두된 것인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건축사자격이 국제적으로 평등한 수준에 못미친다는 것은 어쩔 수없이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전체 건축사를 대상으로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이 바뀌어져야 하는데, 계기는 WTO가 만들었지만 필요성은 원래부터 내재되어 있던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WTO의 추진일정이 예상과 같지 않더라도, 마침 이러한 계기를 통하여 국제적으로 평등한 수준의 건축사까지 끌어올리는 작업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볼 때, 건축사집단인 우리 협회에서 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외국에서는 그러한

복수단체 가능성 필요에 의해 탄생

막아서도 막는다고 되지 않아 이에 대비 차별화된 전략으로 맞서야

일들이 당연히 건축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른바 건축사법의 태동때부터 그런 부분들이 정부와 건축사가 함께 주도해 왔는데, 더 이상 정부가 개설행업을 주도하여 주길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건축사업무를 다루고 있는 정부의 조직이 너무 작을 뿐 아니라 건축사와 관련된 제도는 건축사에 의해 수립되어야 하는게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축사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까지는 협회가 적극적이지 못한 까닭에 이러한 일들의 대부분이 교수와 극소수의 건축사에 의하여 주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건축사의 총의가 모여지는 어떤 정책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끔적이면 많은 건축사가 참여한 조직과 기구를 통해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볼 때 건축사협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회원 개개인이 협회에 애정을 갖고 강한 협회가 될 수 있도록 밀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가령 소비자 단체라든가 경실련 등의 단체들이 시민들의 작은 기부금으로 이루어지듯이 현업에 종사하는 동질의 직업을 가진 건축사들이 기부한 적은 회비로써, 건축사집단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방대한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회원들이 이해하여 주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협회가 하는 일의 일부이지만 어떻게 보면 전문인집단이 해야될 가장 큰 일인지도 모릅니다. 건축사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므로써 더 나아가서는 고객, 즉 건축주로부터 신뢰받는 집단으로 태어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축사 전체의 질이 향상되어야 합니다. 협회라는 조직이 더욱 더 튼튼해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약간의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지금이야말로 회원들께서 내시는 회비로 운영되는 협회의 조직이 가장 필요한 시점인데, 하필 이 때에 임의화라는 것으로 인해 협회라는 조직의 결집력과 뒷받침할 수 있

는 능력 등이 약해지거나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목대상 _____ 회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임의화의 문제는 참여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건축사의 위상정립이라든가, 이익창출이라든가, 대정부 강화방안 즉 법제도 등을 건축사(회원)의 편에서 정립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지구단위계획 등의 문제가 사실 건축사들이 실제 일하

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또 협회의 기구를 보면 비상근으로 되어있는 임원들이 유급 상근직으로 해서라도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서비스라든가 연구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경우도 좌담회로 그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연구를 통해 방향을 정해주고 회원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는 임원들이 자원봉사의 성격이다보니까 회원들이 책임을 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협회라면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회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이끌어 줄 때 회원들 또한 참여도가 높을 것입니다. 물론 수평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실제로 많은 인원을 참여시킬려면 어느 부분인가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이 안됐을 경우에는 회원들이 압력도 가할 수 있고, 책임도 추궁함으로써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상환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막연하나마 할 일이 굉장히 많으리라 보는데, 협회차원에서 그런 것을 연구하는 등 희망찬 비전을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회원에게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건축사의 재교육을 위한 교육기관도 활성화시키는

하의상달 체제 갖추고 모든 것이 회원편에서 정리되어야

회원에 희망찬 비전 제시 참여기회 부여해야

등 무조건 예산을 줄여 일을 안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투자를 통해 회원들의 참여도만 높아진다면 회비는 별개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찬환_____저도 협회의 문제점이 회원들의 참여가 적극적이지 못하다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 원인은 분과활동이 없고, 모든 활동이 형식화되어 있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자료나 근거를 가지고 불씨를 지피는 기능이 있으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하여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근거도 없는 다수의견만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다분히 개인적이고 일회성이 짙은 정책운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대로 할려면 전문성을 갖는 분과나 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논의를 충분히 한 다음에 그 의견을 존중해 주고, 최종 의사결정기관에서 결정을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되는데, 그것 또한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회원으로부터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에서부터 홍보가 되고, 논의과정에서 참여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분과라는 것은 걸돌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제가 속해 있는 법제위원회의 경우 빨라야 하루전에 제목만 적힌 회의자료를 팩스로 보내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법률에 관한 법제를 단 몇시간 회의를 거쳐 결정해서 관계기관에 보낼 성격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전문이직집단라면 특히 대정부관계가 중요한데, 끊임 없이 내부에서 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웃소싱을 통해 계속 연구되어져서 평상시 그런 부분이 회원들에게 알려지고 가부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어느정도 이루어지면 회원들은 어느정도 좋아지고, 어느정도 나빠지는 관계를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여를 못하는 회원들 입장에서 관심이



왜 없느냐를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협회든지 참여가 첫째입니다. 그리고 좋은 회원이 많이 가입하고 활동해야만 협회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회원의 참여활성화이고, 그 방법은 분과위원회나 의견결집과정을 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과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전문화를 유도해야 됩니다.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외적으로 경쟁력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수평적 기능도 좋지만 예를들면 설계도 아파트, 학교, 병원, 교회 등 종류별로 정해서 분과를 만들고 관심있는 분야에 스스로 참여해 활동하면 나름대로 특성화돼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단, 업무와 직결된 부분의 전문화나 참여를 활성화해야 됩니다. 또한 이것을 하면서 반드시 공동화를 해주어야 합니다. 예를들면 건축사협회가 개인단위의 단체나, 업소단위의 단체나, 아니면 자격단위의 단체나를 차제에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양순_____전체적으로 수평적 유대감을 가져야 되는데, 실제로는 여러 여건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유급이 되더라도 협회를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분 사업이 어려울수록 연구, 개발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는 사무처 인원도 대폭 줄이는 등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협회도 투자마인드로 바뀌어서 투자해야 될 부분은 과감히 투자하고, 위원회 위원들도 전문화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서울과 지방을 불문하고 회비가 같아져야 되는 부분, 경감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의 참여의식이 적은데 대하여 전문화된 소위원회를 활성화하여 회원의 참여기회를 넓히는 방안 연구와 리더십의 문제 등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박서홍_____추가한다면 협회의 성격을 중앙집권적인 조직과 지방분권적인 조직 중에서 명확하게 구

무조건 예산 감축보다 합리적인 투자해야 어려울수록 연구개발투자, 우리는 인원감축 등 거꾸로 가

분돼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본부와 지부와의 기능과 역할이 많은데, 그 과정에서 뚜렷하게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본부 이사회의 경우 의결권과 집행권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하고, 따라서 본부와 지회간의 관계를 어떤 틀로 가지고 갈 것이냐에 대한 논의 및 정리가 선결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여태까지 중앙집권적인 성격으로 왔다고 보고, 향후는 지방분권적인 체제로 가서 각각의 역할과 성격이 뚜렷해진다면 분과위원회는 지부에서 맡아야 될 것 같고, 큰 틀의 문제는 본부의 역할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찬환 각 회원이 회비를 내지만, 협회에서는 다음해에 싹을 틔우기 위한 기본적인 투자 R&D가 0.02%밖에 안됩니다. 2%를 투자해도 안됩니다. 이것은 하늘의 법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벤처기업은 15~20%정도이고, 일반제조업이 4~5%정도인데, 특히 지식산업분야라고 볼 수 있는 우리 업계는 4%를 투자해도 안됩니다. 즉 우리가 하는 행태가 앞으로 내년에 심을 씨앗까지 다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싹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준비를 안하고, 내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연구개발투자는 불황기일수록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해야되며, 결실의 일부를 다음 해 농사를 짓기위한 종자로서 비축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상돈 문제는 협회의 재정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방의 예산을 보면 인건비율이 50%를 넘습니다. 그래서 사업이나 연구활동 등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무조직이나, 경영관리 등 모든 건축사의 관리는 본부에서 하고, 시도건축사회는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하나의 모임단체로서 활동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간에 연합회제도도 언급

되고 있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아직은 연합회제도로 갈만큼 주변 여건이 성숙되었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율이 80%가 되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건축사회의 경우는 자립도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건축사협회의 기능을 확실히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방별로 잘 되어 자립도가 높으면 그렇게 가야하겠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현 체제를 더 유지하여 보다 성숙된 단계로 발전되었을 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단계적인 발전차원에서 좀 더 기다려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서홍 전체구성은 지방자치제로 가는데, 예산만큼은 통합예산의 개념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협회의 성격을 얘기할 때 이익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회비수입에다 수익구조모델을 창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비만이 아닌 수입구조에 의해서 파생되는 비용발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과감한 발상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들면 서울시내 강남권에서 20층이상 빌딩을 120억 정도면 구입할 수가 있는데, 협회가 가지고 있는 재원을 활용해서 새빌딩을 구입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발생가능한 수익도 생각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회비에만 의존할 필요도 없고, 회원에 대한 서비스도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장양순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위원회를 운영하여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수익사업위원회에서 나온 공통적인 전제조건은 회원확충이었습니다. 회원확충이 안되고는 여러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를들어 보험의 경우, 현재의 회원숫자로는 보험사에서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조원, 가족, 학생 등을 포함한다면 최소 6만에서 최대 10만명까지 회원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보험만으로도 일부 회비

전문화된 소위원회 활성화 참여기회 확대

위원들의 유급화도 시도해야

를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협회에서 인증제를 실시한다든지, 교육도 아웃소싱을 통해 한다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일부 운영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리더십하고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수익사업위원회에서 이미 작년 9월말에 집행부에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축사 법에는 건축사 자격증이 없으면 회원으로 들어올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전제가 돼야 하는데, 이런 문제들을 추진하다보면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등 여러 가지 부수되는 난제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총괄적으로 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박서홍 _____ 그런 좋은 안들이 있으면 강력하게 건의하고, 적극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최찬환 _____ 수익사업중에서 회원을 담보로 하거나 고정고객으로 생각하여 하는 비전문사업은 곤란합니다. 그것보다는 회원의 고유업무가 있는데,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주업무의 분야를 개척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서홍 _____ 공제사업의 경우, 2~3천만원 짜리 용역 보증증서를 하나 떼는데 100만원이 넘는데, 그것을 우리가 못해주고 있습니다. 수요가 상당히 많은데 타 기관에 가서 해야되는 실정입니다.

최찬환 _____ 그것은 바로 주업무에 필수적으로 따라붙는 부분이고, 아웃소싱하는 부분으로 충분히 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어쩔 수없이 못했다고 하는 것들은 앞으로 수익사업으로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분야가 아닌 업무를 끌어들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업무에 필요한 부분만 수용해서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서홍 _____ 그것은 방법론으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협회에서 직접 관장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비예산사업으로 아웃소싱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관영 _____ 수익사업 얘기를 하니까 희망적으로 보이는데, 저는 거꾸로 돈을 써야되는 부분에 대해



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사의 교육이나 시험제도의 개선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직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예를들면 건축학교육과 관련된 학제개선 부분은 교육계에 맡기더라도, 바뀌어진 교육제도가 건축사를 배출하는데 알맞은 것이냐에 대한 이른바 교육제도에 대한 검증은 건축사가 해야 됩니다. 다시말하면 졸업한 사람이 건축사가 되기위한 충분하고 적절한 교육을 시키고 있느냐 하는데 대하여 건축사가 직접 참여해서 그것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이런제도를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제도라고 하는데 우리에게서 생소한 것입니다만, 이미 영·미에서는 건축사가 되기 위해서는 인증을 획득한 교과과정을 수료해야만 가능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공학분야에서는 이미 이러한 제도가 먼저 연구되고 있고, 공학관련 16개 분야가 모여서 한국공학인증원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전자공학이라든지, 원자력공학, 기계공학, 건축공학처럼 산업계에 흥미를 끌만한 분야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산학협동이 이루어져서, 소위 산업체의 기부금이 연구를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학 교육은 건설회사에

협회 R&D 예산의 0.02%, 벤처기업은 15%대, 4%도 모자라 연구개발 투자로 미래 준비해야

공급하는 기술인력을 위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건설회사에서 설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와 같은 미묘한 문제까지 같이 논해야 되는 입장에서 우리가 어느 누구한테도 산학협동으로 도움을 청할 곳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도와주어야 하는 곳이 나라인데, 그것도 임의화라든가, 자율화라든가, NGO지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크게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들이 우리들 스스로의 힘으로 투자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건축학교육인증원 뿐 아니라, 실무교육을 체계화 시키기 위한 인턴제도를 확립하려면 인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턴교육 과정을 관리해야 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하며, 건축사자격을 딴 사람들을 위해 지속적인 계발을 위해 계속교육제도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제도도 지금까지처럼 국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건축사들이 시험에 깊이 관여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사가 직접 참여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협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해서 또 언제 혜택이 올 지 모르는 일이라고 미루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직업에서 생활하는 한은 자신의 직업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막대한 인력과 재정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이해하고, 협회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장양순 _____ 수익사업과 함께 R&D부분에 대한 투자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울러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공제제도도 수익사업이 되면서 회원에 대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최찬환 _____ 건축사협회에서 꼭 해야될 일이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평가를 사협회에서 해주어야 됩니다. 일종의 인증제입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문

란하고 구분이 없습니다. 잘모르는 건축주는 건물이 좋은지 나쁜지를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객관적인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건축사가 사협회에 등록돼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관리 겸 임의단체에서 평가기관을 가지고 있으면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다 지었으니까 쓰는 사람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후평가를 해주면 다음에 쓸 사람에게도 인식을 높여주는 역할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평가와 인증제는 건축문화창달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관영 _____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건물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은 고객 즉 건축주의 마음대로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건물주가 그 평가를 우리에게 의뢰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찬환 _____ 처음에는 수입창출이 되지 않더라도 스스로 해야 됩니다. 예를들어 일반사람들이 굳이 호텔에 무궁화가 몇 개 있는가를 알 필요가 없고, 어느집이 맛있는 식당이라는 것을 알 필요는 없지만, 등록을 해주면 그것을 보고 오고, 또 그러다보면 등록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에서 작품의 좋고 나쁨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보기에 이 건물은 이리이러한 점이 좋다는 것을 평가해 주는 것입니다.

장양순 _____ 소비자보호연맹에서 녹색인증제를 실시하는 예가 있다고 합니다. 녹색인증마크를 달게 되면 그만큼 특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우리도 예를들어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인증한 건물이라고 하면 진도얼마에도 견딜 수 있는 건물이라든지 등을 제도화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회원서비스 차원에서 공제제도가 논란이 있었

사무조직, 연구개발, 경영관리는 본부, 지회는 지역사회 개발위한 친목단체 연합회제도는 시기상조(인건비가 80%)

습니다. 연금도 그동안 했다가 해체된 상황인데, 현재 건축 사법에서는 연금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제제도와 연금이 외에 회원에게 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서홍 3,40대 회원들을 위해서 인터넷상의 서비스를 확대했으면 합니다.

목대상 덧붙여서 참신한 인재개발이 있어야 하고, 업무의 연속이 될 수 있는 인력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관영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회원의 자격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건축사협회 회원은 개업사무소의 소장이 대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협회를 위하여 자원봉사적 입장에서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와 유사한 다른 단체에서는 인원을 활용하는데 융통성이 있는데, 그 이유는 건축사면허를 가졌거나 안가졌거나 혹은 개업을 했거나 안했거나 관계없이 회원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활용과 관련해서 제도 및 회원자격의 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협회가 회원에게 무엇을 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는데, 거꾸로 회원이 협회에 대해서 무엇을 했느냐고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로 주고받을 때 싹이 틀 수 있는 것입니다. 회원이 협회를 떠났느냐, 협회가 회원을 떠나게 만들었느냐를 떠나서, 임의화가 시작되는 2001년에는 새로 태어난 협회라는 각오로, 협회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뒤에도 도저히 기대에 못미친다면 그때 떠나자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임의화라는 위기가 협회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전기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김승희 저는 건축사협회 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그것에만 집중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건축과 관련된 부조리한 제도의 개선, WTO체제가 요구하는 변화에 대한 준비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건축사협회는 협회를 유지하기 위한 고민도 해야겠지만, 가장 절실하게 고민해야 하는 부분은 건축사가 일하는데 적합한 제도와 환경을 만드는 방법을 찾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정보의 공유, 인터넷, 잡지 등에 대한 것은 이미 충분한 수의 상업체들을 통해 상당한 발전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더욱 발전해갈 것입니다. 홈페이지나 잡지를 운영해야 한다면 그 내용 역시 건축사협회에서만 다룰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양순 다음으로 리더십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협회는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회원은 어떠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쪽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수레바퀴의 양 축과 같은 것이어서 항상 함께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최찬환 사협회가 전체회원을 상대로 해서 실지로 현장에서 느끼는 회원들의 의견들이 본부에서 통계로서 대변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실지로 어떤 사안을 입안해서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것이지, 회원들의 가려운 곳은 긁어주지 못하고 목소리만 높이고 말만 앞서는 식의 회의나 행정은 도움이 안되고, 지양해야 될 것입니다. 회원들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아이디어를 수집해서 제대로 진찰하고 제대로 된 처방을 내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이 무시되거나 없는 것 같습니다. 짐작하건대 내부적인 것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큼니다. 정책과 제도와 법규 등이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개인 회원이 해결할 수 없는

수익사업 전제는 회원확충, 문호개방, 건축사법 개정 되어야 빌딩임대, 공제사업, 건물인증제 등 부대사업 많아

것입니다. 따라서 본부에서 회원들을 통해 법규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결집해서 자료를 만들어 법개정하기 전에 협회의 의견을 건교부에 제출하면 효과가 클 것입니다. 회원들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절실하다고 느낍니다. 대리 만족을 해도 좋으니까 내가 겪고 있는 고충이나 어려움에 대해 협회가 나서서 대변해 주는 것이 협회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여러 회원들의 중복업무에 대한 공유화, 공동화 작업입니다. 그래서 회원들의 애로점을 파악하고, 예를들어 혼자 100만원을 낼 것을 100명이 모이면 1만원씩만 내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투자의 효율화도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모여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업무의 공유화작업을 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적은 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것입니다. 디테일을 예로 들면 한사람이 하나의 디테일을 개발했을 때 100명이 모이면 100개의 디테일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유한다고 하면 99개의 디테일을 그리는데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보화 부분이 거의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느낄 때는 밖으로 갖고 있는 바람막이처럼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과 두 번째는 내부를 효율화시키고 공동화하면서 집적의 이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생존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협회가 회원에게 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필요하다면 강압적으로 해도 무방할 것으로 봅니다. 이는 곧 리더십과 연결된다고 봅니다. 과거의 나쁜 관행은 과감히 버리고, 건축계의 전체를 위해서라도 건축사협회가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사협회는 건축계의 몸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건축계의 인력들을 총동원해서 함께할 수 있는 일을 추진하는 등 건축계가 합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추진함으로써 더

욱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학회, 사협회, 가협회 할 것 없이 모두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중차대한 일이 있기 때문에 회비징수 문제, 돈 자체가 문제가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목대상 토목학회의 경우,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서울시에서는 외국인에게 감리를 주면서 기존의 50배의 비용을 주겠다고 했을 때 토목학회에서는 우리는 10배만 주면 감리를 잘해 주겠다고 해서 토목의 감리 효율을 높이 책정한 예가 있습니다. 또 토목에서 도로설계를 할 때 대안설계를 하는데, 그 대안에 대한 비용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축에서는 대안설계를 했다고해서 돈을 더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개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협회차원에서 대응책 마련을 통해 회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최찬환 예를들어 건축설계를 했다가 허가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IMF를 맞으면서 600%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1,000평을 설계했다가 600평으로 줄어서 다시 설계를 했을 경우에 전체 1,600평을 설계했는데 건축주는 600평에 대한 설계비만 줍니다. 같은 예로 토목은 1,600평에 대한 비용을 모두 받습니다. 이것을 당연시 하는 풍토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회원들 전체가 뜻이 맞지 않아서 그렇다고 봅니다. 단합이 안되는데서 나오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관영 덤핑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은 마련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다른나라에서도 덤핑행위에 대하여는 건축사의 윤리에 호소하는 방법 이외에는 별다른 제재방법이 없습니다. 작업량에 따라 일한 만큼의 적절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기본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그러한 작업량은 계약서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다시말

건축사 인증제도, 계속 교육사업 등 주 업무에 투자해야 수익사업과 회원서비스 함께 이뤄지는 사업 찾아야

해서 모든 보수는 계약서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세한 계약서작성이 습관화 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주택을 설계하는 경우, 건축주의 사정에 의하여 주택을 짓지 않더라도, 작성된 도면과 허가를 내주는데까지 들어가는 비용에 따라 설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표준계약서에는 건물을 건축하지 않을 경우에도 설계비의 몇 %를 지불해야 한다는 식의 상세한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축주와 건축사가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습니다. 결국 건축사가 설계를 하면서 받을 수 있는 설계비 항목을 구체적이고 단계적으로 나열된 표준계약서 등을 공식력있는 협회 차원에서 만들어 회원들이 건축주에게 제시할 수 있는 기본 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서홍_____오늘날은 시스템적 유형을 갖는 관리형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기이고, 우리 협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최찬환_____개인보다는 기구자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상돈_____협회의 장기발전계획이 없는 것 같고, 그것을 실천한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는 임원의 임기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 선거할 때만 무성한 말들이 나돌다가, 중국에는 그러한 말을 언제 했냐는 듯이 넘어가는 것이 우리 협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협회가 발전하지 못한 요인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발등에 불떨어진 것만 해결하느라 바쁘다보니까 계획성도 없고, 뭔가 의욕적으로 할려고 하면 임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정보공유가 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골에 있는 회원이나, 소도시에 있는 회원들은 어느 프로젝트를 수주를 하더라도 정보가 없으니까 작업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회원들의 특수성을 띤 작품이나 건축사지에 수록된 작품들을 용도별로 분류해서 전산화한다면 필요한 부분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협회가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회원은 협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정립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박서홍_____요율의 문제와 가격의 문제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을 느끼는 구조가 독점구조와 공유구조라고 봅니다. 독점구조는 선자독식의 개념이고, 공유구조는 재화의 균등배분 개념입니다. 회원들이 당면하고 있는 어떤 경우든 둘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통일된 논의의 요율체계를 만든다는 것에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크게 독점구조에서 요율체계와 공유구조에서의 요율체계를 둘로 구분하는 선에서 출발하면 회원들이 참고로 쓸 수 있는 요율구조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강제성을 띄지 않더라도 협회에서 회원 서비스의 차원에서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돈_____요율문제는 독점규제와 관련돼 있습니다만, 저희는 지금까지 보수기준을 사용해 오는



관행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율 또는 맨데이라고 해서 사용해 오다가 어느날 갑자기 폐지되어 버리자 기준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교육부와 행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료를 준용하여 활용한 예

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기준을 준용하는 방법 또한 공정거래와 연관돼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런 현실속에서 회원들의 일반적인 시각은 어느 요율이든지 우리 협회가 정하는 것이 있다면 견적서 내기도 좋고, 건축주와 대화

설계보수요율 기준에 문제 있지만 가이드라인 제시해야 회원과 함께 계속 연구 발전시켜야

하기도 좋으니까 만들어 주기만 하면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관영 저는 여러해 동안 요율문제에 관심을 가져 왔었고, 마칩 협회의 의뢰로 이에 대한 연구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업무보수기준을 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작업량에 비례한 비용, 다시 말해서 투입된 직접인건비에 대한 사례조사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경우 정부에서 제정한 설계보수대가기준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3년간의 사무소 실적을 조사하여 평균한 수치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대가 기준이란 것은 없고, 다만 해마다 건물별로 공사비가 얼마고, 자재비가 얼마고, 설계비가 얼마 들었다는 통계자료를 발표하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은 우리보다 소비자의 수준과 시장윤리가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합리적인 통계로 보여집니다. 업무보수대가기준이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와같이 통계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우리실정에서는 통계에 의한 수량화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선 프로젝트별로 작업인력을 기록하는 것이 습관화 되어 있지 않은데다 요즘같이 덩핑을 마다않는 열악한 조건에서는 통계자체의 객관성이 문제가 됩니다. 몇몇 규모있는 사무소들은 자체적인 통계에 의한 설계비계산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무소들은 협회차원의 설계보수대가기준을 필요로 하지 않고도 활발한 설계활동을 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즉 설계보수는 건축주와 설계자 쌍방의 계약에 의하여 정하면 그 뿐인 것입니다. 정부에서 설계보수대가기준을 정하고 있는 일본에서조차 그 첫머리에 '설계보수대가는 계약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설계보수대가기준이 없으므로써 회원이 겪

는 불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 건축주와의 계약시에 기준으로 삼을 만한 자료가 없거나 덩핑의 원인이 된다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계약의 기준으로는 정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예산편성지침이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준이 없는 것이 덩핑의 원인이라는 의견에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설계비는 절대 공공요금처럼 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준이 없다고 해서 밀질 것을 알면서도 덩핑가격으로 수주를 한단 말인지요? 덩핑은 어디까지나 건축주와 건축사 모두의 양식과 수준이 결여되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많은 사무소들이 일꺼리만 많다면 현재 통용되는 설계비로도 불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우리 사무소들이 어려운 이유는 그나마 일거리가 떨어져서 어려운 것입니다. 또 일이 떨어졌기 때문에 직원을 놀리느니 일한다고 덩핑을 일삼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설계보수요율이 있어야 하겠다는데는 찬성하지만, 과연 어떻게 정하느냐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설계보수대가기준이 있다하더라도, 이것이 덩핑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협회에서 결정한 설계보수대가기준이라고 해서, 공공요금처럼 생각하여, 이것보다 덜 받으면 제재를 받으니까 다른데 가 봐야 마찬가지라고 건축주를 설득하려 한다면, 이것은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이상돈 어쨌든 회원들의 시각은 요율표가 있다가 없어졌는데 있었으면 좋겠다는 정서입니다. 또 한가지는 설계를 보면 허가 설계건, 시공 설계건, 그리고 감리부분이 있습니다. 설계단계는 계획, 기본, 실시설계가 있습니다. 각각 기능과 업무가 있고, 감리도 법정감리와 시공 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계들의 데이터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협회에서 이런 데이터를 수집해서 단계별 책임과 업무와 비용들이 정리가 돼야 할 것입니다.

이익창출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공유화 작업 등 리더십의 경영마인드 필요 협회에 대한 믿음과 기대 가지고 회원도 협회에 기여할 일 찾아야

이관영 _____ 덤핑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표본조사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경우, 보수요율을 제정하기 위하여 지난 3년 동안 설계사무소의 장부를 갖다가 조사를 하여 기준을 삼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경우 결국 지금 설계사무소에서 받고 있는 설계비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시장에서의 거래실적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회원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면, 합리적인 설계보수대가기준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서슴없이 제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고, 실행 가능한 방법이어야 합니다.

최찬환 _____ 보수요율이 없는 것 자체가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카르텔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개별사무소와 계약단계에서 갖고 있는 방법들에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옛날의 보수요율이 정확했다고는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각 사무소가 갖고 있는 정확한 기준이라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근접할 수 있는 대표성있는 자료로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 개인단위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운영이라고 보장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술자이기 때문에 경영에 관한 것들은 사무실 나름대로의 평가를 받고 집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협회에서 비교적 괜찮은 사무소 한두개를 선정해서 전문외부기관에 경영평가를 의뢰해서 무엇이 잘못돼 있고, 무엇이 잘돼고 있는지를 평가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면 개별사무소의 비경영인이 사무소를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양순 _____ 보수요율 문제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사무소 나름대로 적절히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해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 리더십의 문제에서는 전문적인 경영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축사로서의 기술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전체 경영을 위한 마인드의 문제,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이 건축사가 돼야 되는가의 문제, 돼야 된다면 상근부회장을 경영분야에서 영입할 필요는 없는가의 문제 등 좀 더 열린생각으로 문제해결에 접근을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회원에 대한 문제도 협회에서 해주기를 바라는 것보다 회원 스스로 개발을 해야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개발을 해서 필요한 것들을 협회에 제공함으로써 여러 회원들이 공유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건축계가 다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등 좀 더 능동적인 발상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협회는 회원과 건축계를 위해서, 회원은 좀 더 협회에 대한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성숙된 건축계를 만드는 데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좌담회를 마치겠습니다. ㄸ